

2020년 11월 6일

민원인은 2018년 12월 표출된 <레드로버, 빵야TV 인수> 기사와 관련해, 인수가 진행되지 않은 내용인데 기사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기사 삭제 요청. 사실을 확인한 후 기사 삭제.

2020년 10월 13일

민원인은 2020년 10월 표출된 <[코로나19] 왕성교회 9명등 서울 확진자 총 17명 추가> 기사와 관련해, 본문에 기재된 민원인 업체의 상호를 빼거나 이니셜 처리해 달라고 요청. 이에 본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방역당국이 발표한 사실에 기초해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며 수정 불가 결정.

2020년 10월 11일

민원인은 2020년 8월 보도된 <[코로나19]사랑제일교회 45명 추가, 누적 841명..정은경 “심각한 상황”> 기사와 관련, 기사 내용중 코로나가 발생한 기관의 상호가 잘못 기재되었다며 수정을 요청. 이에 본지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보도자료 잘못 내 나중에 정정자료를 낸 것을 확인하고 내용 수정.

2020년 8월 24일

민원인은 2019년 2월 14일 게재된 <중국산 '길쭉이 보리과자'에 금속 이물 발견, 회수 조치>와 관련해 사후에 처리를 했는데 현재도 해당기사가 지속적으로 노출돼 소비자에게 문제업체로 인식돼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며 기사 삭제를 요청. 이에 본지는 해당 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내용으로 팩트에 문제가 없어 수정 불가 결정.

2020년 5월 13일

민원인은 2020년 5월 12일 보도된 <이태원 집단감염, 제2신천지? 접촉자 신속 파악이 관건> 기사와 관련해, 집단감염과 관련해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엮는 표현은 해당 지역이나 집단에 차별적·경멸적 표현으로 사회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수정을 요청. 이에 본지는 내용을 수정하고 제목은 <이태원 집단감염, 전방위 확산? 접촉자 신속 파악이 관건> 으로 수정.